

한국에서 민족은 20세기 이후에 들어온 개념임.

○ ○

한국에서 민족은 러일전쟁 이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고 이때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된 개념임.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인 근대에 들어와서야 들어온 개념이었고, 반면에 전근대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박했음.

영화 '황산벌'을 생각해보자.

신라와 백제는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 생각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서로 같은 하늘 아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극악의 사이였음.

이처럼 전근대의 희박한 민족 개념은 고려와 조선 시기의 귀화인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박연을 조선 관리가 하멜에게 조선인이라고 말했던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남.

20세기 민족 개념의 수용은 올해 1월 첫 주에 방송된 역사저널 그날에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추천함.